

자운영

(학명 : *Astragalus sinicus*, 콩과)



꽃이 만발한 자운영 밭

자운영(紫雲英)은 중국원산으로 이름에서도 중국냄새가 난다. 녹비자원과 목초자원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재배하였으나, 비료가 풍부해지고 임금이 비싸지면서 자취를 감추었다. 그러나 최근 유기농업, 휴경보상제, 밀원식물, 경관작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므로,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는 듯하다.

자운영은 2년생 초본으로 높이 10-25cm이고, 백색의 털이 약간 있으며,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옆으로 자라다가 곧게 선다. 꽃은 4-5월에 홍자색으로 피

고, 화경은 길이 10-20cm이고, 끝에 7-10개의 꽃이 산형으로 달리며, 꽃은 길이 12mm쯤이고, 소화경은 길이 1-2mm이다.

단감으로 유명한 경남 진영에서는 단감밭에 자운영을 심어 꿀벌을 기르기도 하는데 자운영을 밀원식물로, 질소비료 공급과 단감밭의 토양보호작용을 할 수 있다.

잎은 우상복엽이고, 소엽은 9-11쌍이다. 열매는 6월에 성숙하고, 협과는 흑색으로 익으며 길이 2-2.5cm, 지름 6mm 정도다. 2실이고 종자는 누런빛이 돈다. 번식은 종자로 한다.

양봉



자운영 꽃과 꿀벌